

## 생산물 판매창구의 일원화를 기해야

설 동 설 박사  
(축산시험장 육종번식 담당관)

### 1. 당면한 문제점

양계업이 오늘날 계속적인 불황을 겪고있는 것은 사료가격의 급격한 양등과 유류파동이 후 회복기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경제침체

가 가져다준 양계생산물의 매기부진등이 겹쳐진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964년도 이후 10년간의 닭 사육수수를 보면 매년 10~20%씩 늘어나는 양계생산물의 수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꾸준히 늘어 가다가 1972년 이후는 감

표 1. 년도별 닭 사육현황 단위: 천수

구분 \ 년도별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사 육 수 수	10,281	11,893	14,008	17,079	25,968	22,651	23,477	25,903	24,537	23,070
지 수	100	115	136	166	252	219	228	252	238	224

소 현상이 나타났고 1973년도의 사육수수는 1970년도의 사육수수에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양계산업에 큰 불황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1972년도에 닭사육수수가 줄어든 것은 사료파동 때문이 아니라 주로 그 전년도인 1971년도에 도입

계의 수입량 조절로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었으나 그 다음해인 1973년도의 닭사육 수수 감소는 이와는 달리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곡류파동 때문에 사료용 곡물 가격이 무려 1년사이에 70%나 양등 되므로서 일어났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양계를 황에 미치는 영향이 1972년도의 것과는 달랐는 것이다. 1974 년도에 들어와서 6월말 현재로 산란 성계와 자라나는 병아리를 합쳐서 겨우 2,500만수를 약간 상회하는 사육수수를 보인 것은 년말 수수로 계산 한다면 1973년도 보다 하회하는 수수로 기록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표 2. 년도별 사료 가격 변동

구분 \ 년도별	산 란 계 배합 사료		도입육수수		비 고
	kg당 가격	지수	%당 가격	지수	
'69	28.84	100	66.7	100	※74년도는 8월까지의 평균 가격임
'70	30.59	106	73.2	110	
'71	38.08	132	68.1	102	
'72	38.69	134	61.7	93	
'73	50.61	175	110.2	165	
'74	70.50	245	150.0	225	

종계가 너무 많이 수입되어서 생산과잉에 의한 가격 하락 때문에 빚어진 것이므로 도입종

작년도와 금년도의 사육수수 감소는 순전히 사료가격 양등과 경제침체에 의한 양계생산물의 소비감소에 그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피상적으로는 남득이 가는 양계불황이라 하겠지만 이 불황을 더욱조장한 결과가 된 것은 배합사

료의 가격이 도입되는 사료용 곡류의 국제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것을 따르지 못하는 선에서 묶였기 때문에 사료의 질이 형편없이 저하되므로 양계업자의 재산에 위협을 준 것이 그 결과의 원인중 하나이며 또 한가지는 시중 음식점에서나 일반가정에서 수년전에 닭고기를 상당히 먹든 식사패턴이 달라져서 닭고기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기호가 떨어졌다는 점을 결하여 열거할 수 있다. 이외에 보편적으로 양계가에게 잘 알려져 있는 원인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은 제과 제빵공장에서 원료가격의 앙등으로 인한 값비싼 계란 우유 따위의 영양식품원료를 제한하게 되므로써 공업용수요가 갑자기 줄어 들었다는 점은 이미 밀가루의 값이 오르는 초기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수요감소는 양계생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일반 가정에서도 모든 물가가 오르면 제일 먼저 먹는 음식에서 제외되는 것이 축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소비하는 축산물의 거의 절반을 차지 하는 양계생산물의 감소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양계생산물의 계절적인 생산량조절이 제대로 안되어서 단기적으로 자

주 맞는 불황을 들 수가 있다. 이것은 생산계획을 정확한 수요추정에 의하여 사전에 세워서 양계업자나 부화업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생산을 조절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업자 서로가 불신하고 욕심을 부리며 악의의 경쟁 의식을 갖기 때문인 것이다.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하에서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잘 맞지 않는 일이 허다하다. 그런때에는 즉각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신축성을 구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을 신축성있게 잘 세웠다 하더라도 작년과 금년 두차례에 걸쳐 부화업자 협회에서 결의된 생산조절이 한두사람의 대규모업자에 의하여 파기 되므로써 생산조절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례등의 관례로서는 앞으로 단기적인 양계불황마저도 전혀 방지할 길이 없는 것은 뻔한 일이다. 생산업자가 다같이 과열 경쟁을 한다면 결국 다 같이 쓰러지는 이치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양계산업 윤리라고 할 수 있다.

표 3. 양계 산물의 가격동태

구분	년도별	'69	'70	'71	'72	'73	'74	비 고
계란	가 격	10.05	11.65	11.13	11.25	13.75	17.13	대란 1개 가격
	지 수	100	116	111	112	137	170	
계육	가 격	211.70	203.80	199.50	208.70	181.10	403.50	생체 1kg당 가격
	지 수	100	96.0	94.2	98.6	132.8	190.6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양계생산물의 가격을 배합사료 가격앙등과 질적저하에 비하여 적게 받고 있다는 점이다. 표 2와 표 3을 비교해 볼때 배합사료 값은 1969년도에 비하여 1974년도에는 무려 245%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계란과 닭고기는 불과 170~190%밖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은 양계산물의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양계산물의 생산자 판매가격은 변동없이 싼데 비하여 시장소매가격은 전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오르는 경우를 볼수 있다. 다시 말해

서 유통마진이 너무 크다는 말이다. 적어도 30~50%까지 차가 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에 비하여 비록 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영기반이 약한 우리나라 양계업에서는 앞으로의 불황타개와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로 배제되어야 할 요소중의 하나이다. 항상 양계업의 불황에 오히려 재미를 보는 것은 중간 상인들이라고 듣고있다.

## 2. 앞으로의 진로

앞에서 말한 문제점을 요약하면 첫째, 사료 파동의 압력, 둘째, 경기침체에 의한 수요격

감. 셋째, 기호변동. 넷째, 사료가격의 비현실화다. 다섯째, 생산조절의 불안점. 여섯째, 생산물 가격 비현실화등으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사료파동의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에 최대의 주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것은 먼저 도입사료용 곡물을 차관 형식이라도 장기계약에 의하여 물량확보와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첩경이며 국내생산사료를 개발 최대한으로 활용하므로써 도입곡물을 대체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옥수수, 고구마, 녹사료증산과 국내대맥의 사료전용도 배합기준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옥수수와 같은 고열량사료를 제한하고 저열량사료에 강한 종계의 품종선택도 아울러 병행되어야 하겠다.

둘째 경기침체에 의한 수요격감은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가시기 전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이미 가공품 가격이 현실화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양계산물을 쓰지않고 제과 제빵을 종전대로 판매하는 행위를 우리양계인이 철저히 규명하여 보건당국의 협조하여 시정 시킴으로써 수요격감을 다소나마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며 식단을 줄일때 축산물 중에서 양계산물이 가장 싸고 영양가가 많으므로 이것을 제외하지 않도록 P.R을 더욱 열심히 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을 고치게 함으로써 양계산물소비를 회복시키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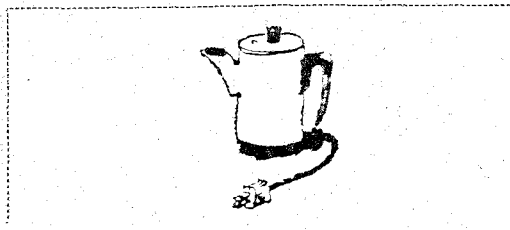
셋째, 양계산물에 대한 기호변동을 들 수 있다. 수년전에 우리가 닭고기를 흔하게 먹던 것을 생각하면 어쩔일인지 최근에는 닭고기를 별로 먹는 것 같지 않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뚜렷이 말할 수 없지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의 기호에 어떤 유행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수년전 닭고기를 너나 없이 먹어대고 음식점 마다 닭요리가 판을치며 치킨센터에 사람이 매어질 만큼 붐비던 것은 정상적인 소비패턴에 의한 소비수요가 아니고 일종의 유행에 의한 가수요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며 그 유행이 지난 최근의 소비가 진실된 정상수요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또 생각되는 것

은 과거에 먹던 약병아리는 그런 대로 우리나라 고유의 요리에 알맞는 풍미를 가졌으나 외국계인 하이브로가 쏟아져 나오면서 부터는 고유의 요리법으로는 맛이 없어 일반 소비자들이 구미를 잃은 탓도 있겠다. 1972년의 과잉생산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닭고기에 대하여 질리도록 만들었다는 것도 무시못할 소비부진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닭고기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닭고기에 질리지 않는 요리법의 개발과 너무 과잉생산을 해서 닭고기를 천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한 일이다. 아직도 우리주변의 시장성은 고유한 형태의 수요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서양화된 양계산물의 생산 일변도로만 치우친다는 것도 재고 할 여지가 있다고 보겠다.

넷째 사료가격의 현실화를 하지 않으므로써 사료품질이 떨어져 이로인한 생산효율의 저하는 결국 양계업자만 출혈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싼것이 비지떡이라고 사료가격을 낮추기만 하다보니 원료가격의 앙동에 비추어 이익을 남길수 없는 나머지 사료메이커에서는 자연히 성분상으로는 변동이 없지만 품질을 떨어뜨려 이익을 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것은 생산업자의 양계산물 생산비만 높게 하므로써 결국 출혈경영을 강요하는 것이된다. 이와 아울러 여섯째의 생산물 가격에 대한 현실화도 아울러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배합사료값이 4~5년사이에 245%가 오르는데 비하여 생산물값은 170~190% 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로는 비록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절적인 불황에 매우 약한 가격형성을 감수할 수 밖에 없으므로 호황에서 얻는 이익은 적고 불황에서 얻는 손해는 커서 결과적으로 양계업자만 골탕먹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격도 사료가격 인상폭만큼 올라야 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양계업자 자신들이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다섯째의 생산조절이 크로즈오프된 생산조절의 방법은 생산자 자신들의 타협에 의하여 실행하는 방법, 사료량을 생산물 수요에 맞추어서 조절하므로써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방법, 종계등록을 통하여 종계수수를 조절함으로써 이루

어지는 방법 및 모들 양계산물의 판로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 하므로써 계획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방법 네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율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지만 경쟁의식이 존재하는 자유주의 경제 체제하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고 우선 나중에 얻는 효과야 어떻든 간에 착수하기 쉬운 것은 중계등록을 통한 중계 수수 조절이다. 그러나 이것도 임시변통은 되겠지만 업자들이 이탈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료량의 조절방법은 매우 용이한 방법이기는 하나 잘 못하면 사료품귀현상을 초래하여 양계업이 사료업계의 장난에 요리 당하기 쉬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방법은 좋지만 우리사회의 상도의상 불가능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적어도 먼 장래를 향하여 양계산업을 안정시키자면 영구적이고 보다 완벽한 생산물 판매창구의 일원화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방법은 양계인 스스로가 가격, 판매수량, 수출수량, 생산량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동시에 농수산부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지역별 생산지표 선정에도 적합한 제도가 될 것이므로 우리는 양계협회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얻어 하루 빨리 이제도를 양계산업에 도입하여 양계인이 안심하고 닭을 사육할 수 있고 소비자도 안정된 가격으로 양계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지않으면 안되겠다. 물론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무슨일이나 문제점이 없는 방법이 있을 수 없는 것 처럼이 방법도 시작이 반이라고 하루 속히 착수했으면 양계산업을 안정되게 끌고 갈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호평리에 발매중

호흡기병(CRD)특효약

청량리가죽약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 2 동597~3  
\* (한국 육계회연락처)  
TEL. 96-8780

3층  
이전장소

